

1차산업의 성과와 과제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 **고 성 보**

I. 서 론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은 비전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로 정하고, 전략목표로서 고도의 분권자치 구현, 세계 경제시장의 개척, 다원화사회 복지 실현, 국제 문화 교류의 확대,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 등 5개로 정했다. 10대전략으로 첫째 세계적 모범이 되는 특별자치 실현, 둘째 수출로 잘 사는 제주, 해외수출 1조원 시대 개막, 셋째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 넷째 사람을 키우는 제주, 일자리 2만개 창출, 다섯째 1차산업과 향토자원의 세계화, 여섯째 외국인 관광객 2백만명 유치, 일곱째 지역 불균형이 없는 제주, 여덟째 문화 행복지수가 높은 제주, 아홉째 지역공동체 맞춤형 복지 실현, 열 번째 환경·평화·인권의 제주공동체로 정했다.

본 소고는 우근민 도정 3주년을 맞이하여 1차산업의 주요성과를 감귤산업, 일반농업, 축산업, 해양수산업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 향후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민선 5기 3년의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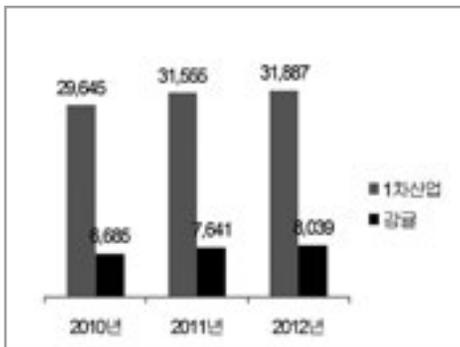
1. 총 괄

제주의 1차산업은 한·칠레, 한·미, 한·EU FTA 등 농축수산물 시장개방과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각종 정책수립과 집행과 1차산업 종사자들이 헌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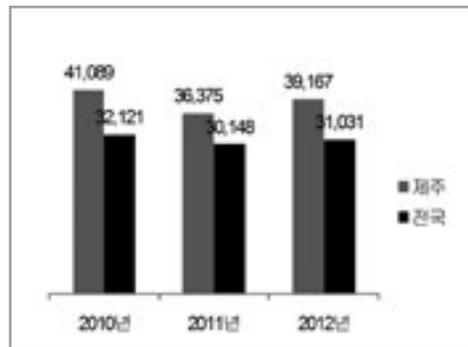
인 노력을 한 결과, 1차 산업 조수입 3조원 시대 개막과 함께 연속 농가소득 전국 최고라는 기조를 계속 이어올 수 있었다.

먼저, 1차 산업(농축수산업) 조수입은 2010년 2조 9,645억원에서 2011년 처음으로 3조원을 초과해 3조 1,555억원이 되었고, 2012년도에도 이 기조가 유지되어 3조 1,887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의 지주산업인 감귤산업의 조수입은 「맛과 품질」, 가격차별화로 2010년 6,685억원 → 2011년 7,641억원 → 2012년 8,039억원(잠정) 등 3년 연속 최대 조수입을 달성했다. 또한 2012년 제주의 농가소득은 39,167천원으로 전국평균 농가소득 31,031천원보다 8,136천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산업 및 감귤 조수입 현황〉 (억원)



〈제주 및 전국 농가소득〉 (천원)



이러한 사업들의 착실한 진행으로 각종 국가단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첫째, FTA기금사업 추진평가에서 '10~'12년까지 3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농림축산식품부)되어 인센티브(3개년) 3개 분야 265백만원 감귤산업에 재 투자했다.

둘째, 도지사 인증 농수특산물 “J마크”와 “제주감귤”은 국가브랜드大賞을 획득(국가브랜드위원회, 2011.4.7)하여 제주농수산물의 명성 및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기도 했다.

2. 감귤산업 육성

먼저, 비가림 등 만감류 재배확대(3,206ha · 108천톤)로 감귤 연중생산·출하시스템 구축으로 부농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둘째, FTA기금사업('10~'12)을 영세농가까지 지원 확대를 위해 영세농가에 특별배정(총사업비의 30%) 지원지침을 개선해서 3

년간 전체 30,797 농가의 15.7%(4,835 농가)에 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셋째, 감귤 수출문제 해결 및 수출전용 거점APC를 건립 추진했고, 사각앵글오픈박스, 이마잘린, 수확가위 등 수출문제(부패율 5% 이하)를 개선했다. 넷째, 가공용감귤 수매가 인상 [(‘10) 120원/kg → (‘11) 140원/kg → (‘12) 160원/kg]을 통해서 비상품 격리→상품감귤 가격지지 효과를 만들어냈다. 가격지지 효과는 kg당 200원으로 549천톤인 경우 1,0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반농업 육성

첫째, 채소류 수급안정·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월동무 재배신고제’를 도입해서 2012년에는 1,558농가·3,593ha 재배신고, 81,053톤 계약재배를 이루었고, 이는 2011년 대비 11%가 증가한 실적이다. 또한 전국 지배품목 월동채소 수급안정 및 농가합의 실천 대표조직을 당근, 마늘, 양배추, 무 등 4개 품목으로 확대했고, 월동무 시장격리(557농가·492ha)를 통해 2,783백만원의 농가소득 지지효과를 초래했다.

둘째, 농업 인프라 및 물류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용천수를 활용한 서부지역 전천후 항구적인 가뭄 해소 기반 구축을 통해, 대정·한경지역 313ha의 수혜지역을 만들어냈고, FTA에 대응한 제주농특산물 물류개선 기반 조성을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현대화시설(91개조직·330억원)을 투자했다.

셋째, 원종장 중심의 씨드밸리 조성으로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특산작목(감자, 백합, 맥주보리, 콩, 약용작물)의 종자, 종구, 종묘 생산·보급했고, 감귤육종센터 설치로 돌연변이 및 교배육종을 통해 감귤 품종개발 기반을 마련했다.

4. 축산업 육성

첫째, 친환경적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축분뇨 발생에서 수거·처리까지 투명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했다. 이는 환경부에서 벤치마킹하여 안전행정부를 통해 전국 확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양돈분뇨 광역화 집중처리시설에서 처리율을 45%에서 84%로 대폭 향상시켰다.

둘째, 말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진흥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하여 10대정책·50개과제 2,200억원(국비 650, 도비 816, 자담 734)을 투자하기

로 결정했다.

셋째, 제주형 종축산업 기지화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 지역재래가축의 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은행을 설립하였고, 농가 수요충족을 위한 씨돼지 및 액상정액 공급을 대폭 확대했다.

넷째, 전국 유일 구제역, 고병원성 AI 청정지역 유지로 지역경제 손실을 방지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구제역 제주 발생시 최대 11,842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했다.

5. 해양수산업 육성

첫째,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한·중 FTA 대응 수산자원조성사업,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사업, 양식산업 육성사업 등을 착실하게 추진한 결과, 해양수산 조수입 2년 연속 8,000억원대 진입을 달성했다.

둘째, 제주 ↔ 수도권(평택항) 해상물류체계의 혁신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평택항 포승물류단지 내 부지 11,563㎡, 건물 3,104.9㎡을 준공하고, 냉동실(525㎡), 냉장실(516㎡), 집하장 등의 시설(48.3억원 투자)을 올 7월 준공예정이다.

셋째, 동북아 요트 중간기항지 등 마리나리조트산업 육성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김녕·도두항 공공요트마리나 시설, 해양레저장비 제조공장 등을 준공할 계획이다.

넷째,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항만인프라를 확충하여 제주 물동량의 98%를 항만 처리하고,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로 국제 크루즈 항만 인프라를 구축했다.

III. 향후과제

지금까지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의 1차산업 관련 3년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러니하게도 FTA 과실기금사업에 의한 시설하우스 등의 시설비의 집중적인 집행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이루었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전국대비 농가부채 규모 또한 다른지역은 감소되고 있으나 제주지역은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FTA 등 급격한 시장개방에 대응한 제주형 실질적인 대책, 즉 농식품부의 정책 매뉴얼이 아니라 제주형 농업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주의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을 상호준수 의무를 전제로 감귤의 경관 및 친환경보전직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발담의 국가농업유산 지정과 FAO의 세계농업유산의 등재 노력의 성공과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실질적인 대책인 발담의 직접지불제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FTA 종합대책 마련 및 총체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최대의 499명의 메머드급 FTA범도민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다섯째, 감귤을 비롯한 농축산물을 생과 및 원물생산 위주의 사업에서 각종 농축수산물에 포함된 기능성 물질의 산업화를 통해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는 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의 공약 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재수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제주발전포럼